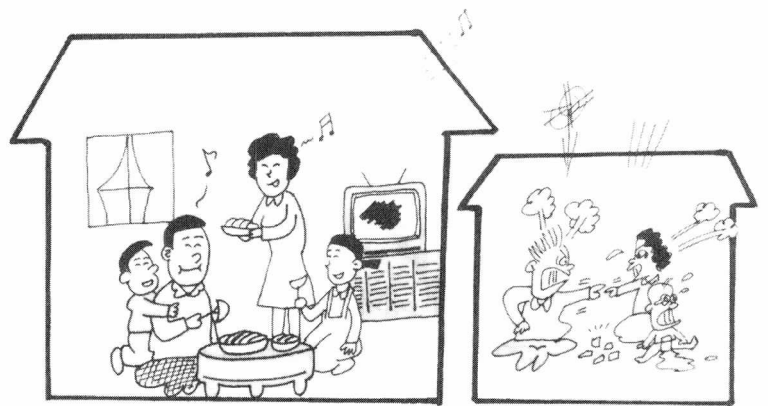


직장과 가정과의 관계

1. 개인생활과 재해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일에 정신을 빼앗기게 되면 그 외의 다른 일에는 열중 할 수 없게 된다. 가정에서의 크고 작은 일들이나 회사에 출근시의 일들, 휴일에 있었던 일들은 직장생활의 안전보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생각되나 사실은 산업재해사고의 대부분이 직장 외부의 생활속에서 가지고 들어와 야기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 휴일동안의 불유쾌한 일들이 작업도중 자꾸 생각이 나서 업무에 몰두할수 없게 될 경우 무심코 기계 속에 손을 넣어 버린다든지, 발을 헛디더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불화, 통근길에서의 옥신각신, 불쾌한 기분등을 그대로 작업속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잘못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두 가정중 어느 쪽을...?



CHECK
POINT

안전은 가정에서 부터
항상 명랑한 기분으로 작업에 전력하자
가족과 직결되어 있는 안전



2. 여유를 가지고 출근하자.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기 위해 집을 나올 때 까지 60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이 좋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사, 옷을 바꾸어 입으며 출근준비를 하자면 60분 정도의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침착성을 잃어 덤비다가 통근도중에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또한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도 여유가 있도록 계산하여 집을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걷는 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버스를 타는 시간등을 생각하여 10분정도 빠르게 회사에 도착하도록 집을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의 여유가 있더라도 가지고 가야 할 물건이 없다가, 신발이 이상하다든가, 누구와 입씨름을 했다는 등으로 기분을 상한 채 집을 나오거나, 통근차 내에서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어 그것을 생각하면서 출근하게 되면 작업중에도 신경이 쓰여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부드럽지 못하거나 주의력이 둔해져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주변의 정리 정돈을 철저히 어둠속에서도 물건을 알수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